

**【셱커, 동북아 입지 강화위한
KLC(Korea Logistics Center) 본격 건설】**



통합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셱커코리아가 지난 2005년 3월 15일 인천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센터 건설을 위한 협약식에 이어 지난 11월 29일 건설 현장(인천자유무역지역 Plot A16)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미 외국에서도 물류중심 측면에서 지정학적 좋은 위치임을 인정받은 인천의 자유무역지역에 건설될 KLC는 100억 원 상당의 순수 외자 유치, 대지면적 10,049 M² (3,040평), 총 건축면적 4,875.73 M² (1,475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내년 2006년 3분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마틴붕가드 셱커코리아 사장은 오프닝 스피치를 통해 이 날의 착공식은 셱커코리아가 동북아 물류 허브의 일원으로서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물류 서비스의 장을 열기 위한 시적인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Schenker 본사의 Logistics Board Member인 Dr. Trefzger는 한국이 동북아 중심지로서 투자 적격지이기 때문에 이번 투자가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KLC 건립은 항공과 해운의 편리한 운송과 물류운송 핵심, 국내 고객 사업주도 등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추진하게 된다고 하며, 이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로 찾아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KLC 설계는 정림건축에서, 건설은 대우엔지니어링 에서 맡아 진행하게 된다.

KLC의 활용방안에 대해 셱커 관계자는 자사(Schenker)의 경영 전략, 정책, 경영혁신 및 운영방법을 극대화해 적용한다고 언급했다. 즉 일반 공산품, 산업 생산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비롯한 반도체와 자동차산업 분야 등 맞춤형 구매 물류 및 다양한 부가 가치 서비스를 포함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셱커코리아는 사업 영역 확장으로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지역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재희 인천공항공사 사장, 박재홍 인천공항 세관장을 비롯, 건설 협력사와 독일 대사관 그리고 고객사 등 많은贵宾들이 참석해 셱커 KLC의 사업을 기원했다.

독일의 Deutch Bahn AG의 자회사인 셱커는 전세계 항공 및 해운 물류업계 5위안에 들며, 유럽에서는 내륙 운송 10위안에 드는 회사이다. 현재 1,100여개의 사무소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39,000여명의 직원과 매출 필적액유료(약 10조원)를 올리고 있는 회사이다.

【대승항운, 제42회 무역의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국내의 대표 복합운송업체인 (주)대승항운(대표이사 채명기)이 제 42회 무역의날 물류부문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지난 11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이날 기념식에는 무역 5000억달러 달성 등 무역진흥에 기여한 수출유공자 782명에게 산업 훈 · 포장 및 표

창이, 1333개 업체에 수출의 탐이 각각 수여됐다.

대승항운은 국내외 각 항공사/선사들을 통해 최상의 운임 경쟁력을 바탕으로 업계 최초 web 기반의 화물추적시스템개발, 신개념 수출운송 Route연구 개발, 대내외 물류교육과 인재 양성 등을 통해 21C 물류산업을 선도하는 복합운송업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01년 건설교통부-물류대상 국무총리표창', '03년 문화관광부-물류부문 대통령표창'에 이어 '2005년 산업자원부-물류부문 국무총리표창'으로 이어지는 수상의 영예를 가지게 되었다.

대승항운은 IT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물류흐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WEB기반의 화물 추적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개발하여 고객에게 서비스하였고 1999년부터는 국내 대기업의 해외 현지 공장물류 합리화 및 원가 절감을 실현하는데 일조하였다.

국내 최초로 정기성 전세기 운영으로 한국-유럽간 항공 Space 확보를 통한 만성적인 성수기 항공 수출운송의 불안 해소에 기여하는 동시에 물류비 절감에도 일조 하였으며, 신개념 Sea & Air Route 개발, 항공사 Block Space계약 운영 등의 업

계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의 운송 Route와 System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보다 저렴한 물류비용과 신속하고 안정적인 운송 방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물류Consulting 업무의 초기 계획, 실행 및 Feed Back에 이르는 책임 있는 물류안정화 확보를 위한 연구와 Consulting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물류교육발전과 물류전문인재 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직원교육에서부터 관련 협회교육 및 다양한 외부 위탁교육 및 사내 강사초빙 교육 전 사원의 물류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대표, 한규환 현대모비스 대표, 홍순익 한진중공업 대표 등 3개 대기업과 유순언 신아 대표, 허용도 태웅 대표, 김길호 거산 대표 등 3개 중소기업 등 6개 기업 대표가 수상했다.

【CJ GLS 민병규 대표, 지난 12월 8일 취임】



민병규 CJ GLS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식이 지난 12월 8일 CJ 인재원에서 이재현 그룹 회장과 10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신임 민병규 CJ GLS 대표이사는 79년 CJ그룹에 입사해 25년 동안

기획, 물류전략 및 3PL본부장, 택배 본부장 등을 두루 거친 물류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CJ GLS의 택배사업 진출 및 성장과 더불어 국내 3자 물류시장 개념을 정립하면서 CJ GLS가 종합물류회사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말연시 선물은?】

2005년 한해가 저물고 2006년 새해가 다가오는 요즘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보낸다면 가장 인기있는 선물로는 어떤 것이 좋을지?

세계 최대의 항공 특송회사인 FedEx (www.fedex.com)가 취급하고 있는 화물들을 보면 중국산 가전제품이나 의류, 일제 비디오게임 등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페덱스가 발표한 휴일 시즌 선물로 가장 인기있는 상품을 취급하는 여러 글로벌 기업들의 상품운송 형태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전세계로 배송되는 중국산 가전제품 △일본에서 전세계로 배송되는 일본산 비디오 게임 △중국, 인도, 유럽에서 전세계로 수출되는 여성의류 △인도와 유럽에서 전세계로 배송되는 보석, 최신 유행 하이패션(high fashion) 의류 등의 사치품 등이다.

이러한 제품 등을 수송하기 위해 FedEx (www.fedex.com)의 직원들은 지난 2004년 가장 바쁜 날보다 40만개나 증가한, 하루에 최고 8백 5십만개에 달하는 화물을 처리하는 등 올해 누구보다도 바쁜 연말을 보낼 예정이다.

특히 FedEx Corporation의 자회사인FedEx Express에게는 전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4백 7십만개의 화물을 배송하는 12월 19일이 가장 바쁜 날이 됐다.

FedEx의 Chief Economist인 진 후앙 (Gene Huang)은 "최근 각종 경제 조사에서 크리스마스에서 새해까지의 연휴시즌이 호황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중산층의 증가로 사치품 및 수입품의 소비가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물류**

